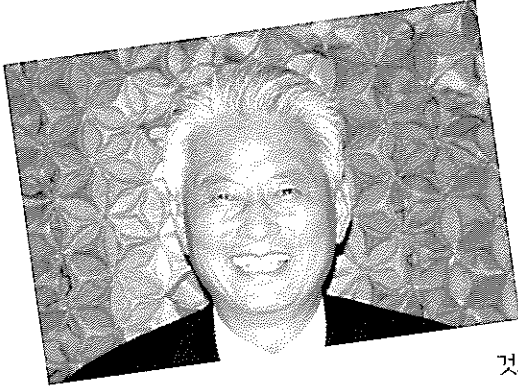


① 윤홍렬씨 FDI차기회장 당선



윤홍렬 치협 고문이 FDI 차기회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9월 27일 오후 2시 말레이시아 칼리룸푸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서 8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89회 FDI 총회에서 윤고문은 유효 득표율 68% (71표)를 차지, 32%(33표)를 득표한 벨기에 미셀 아덴 후보(여)를 36% (38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한국 치과 의사 최초로 FDI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윤고문의 이번 당선은 아시아계 인사로는 일본의 야마자키와 주루마키 회장, 현 회장인 말레이시아 라트나네산 회장에 이어 4번째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기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윤고문은 오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간 회장직을 수행, FDI 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날 총회에 임하면서 윤고문은 세계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해 FDI를 적극 홍보, 위상을 높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창출해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다

② 수돗물 불소화 일부 단체 반대 불구
복지부 계속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정기 국정감사에서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과 상관없이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1년 현재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정수장은 모두 48개소이며, 7백4만여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손화정의원이 복지부에 요청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손의원이 질문한 '일부지역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과 관련, 세계 보건기구 권장사업일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청(CDC)에서도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중보건분야 10대업적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시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확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면서 그러나 인체의 안정성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 불소화 사업관련 불신을 해소시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③ 돌팔이 피해 사례집 만든다
치협, 개원가 배포 국민홍보 목적

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사례집을 제작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치협은 근래에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치과부정의료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 대처 방안으로 피해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구강건강 예방차원에서 각 지부나 치과대학에서 수집한 피해사례를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해 치과의료기관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이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치협은 올해 말까지 각 회원이나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사진, 필름, 진료내역 등)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며, 자료는 활용 후 반송 할 것이라고 밝혔다.